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
-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 금융 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하여 민생회복 뒷받침
 -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을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1.8일(수)에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①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②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③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 일시 : `25. 1. 8.(수) 14:00
- 참여부처 :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4개 부처
- 보고주제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구체적으로 ❶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총 247.5조원)하면서,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24년 대비 20조원(17.2%) 증가)하고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하였다.

❷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24.11월 영업자까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5.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❸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비전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3대 핵심 목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9대 정책 과제

시 장 안 정

- 01 (시장안정)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02 (리스크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03 (실물지원) 금융이 실물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민 생 회 복

- 04 (민생안정)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5 (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ی겠습니다.
- 06 (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 융 혁 신

- 07 (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 08 (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0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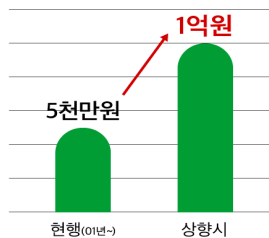
시장안정

위기 예방·대응력 강화

- ✓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 계정" 도입
- ✓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예금자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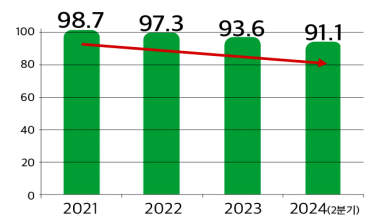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
상향 1억원



가계부채 안정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대외신인도 제고



정책금융 적극 공급

구분	공급 계획
① 첨단전략산업 육성	37.2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21.5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31.0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7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9.7조원

5대 중점분야에
정책금융 136조원 집중 지원
전년 대비 20조원(17.2%) 증가



민생회복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채무조정으로 금융 부담 경감

구분	대상 차주	대상 대출액	총 이자 경감액	차주당 경감액
연체전 채무조정	10만명	5조원	1,210억원	121만원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10만명	7조원	3,150억원	103만원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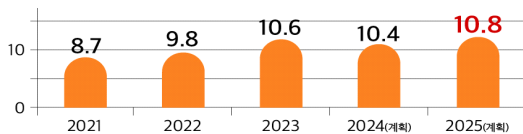
구분	대상 차주	대출 규모	은행 출연금	차주당 대출액
햇살론119	3만명	0.6조원	0.1조원	2천만원
소상공인 성장up	2만명	1.1조원	0.1조원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서민금융 확대

☑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단위: 조 원)



☑ 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 적용

- ◆ 근로자햇살론 : 1,500만 원 → **2,000만 원**
- ◆ 햇살론15 : 1,400만 원 → **2,000만 원**
- ◆ 햇살론뱅크 : 2,000만 원 → **2,500만 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 보호

☑ 금융소비자 접점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관행 정착

☑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혁신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을 지원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

현재 여신·수신 제공

향후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은행), 노후지원·결합상품 서비스(보험), 종합재산관리(신탁) 등 제공



자본시장 선진화

☑ 자본시장에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로 국민이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디지털금융 활성화

☑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혁신역량 강화로 국민에게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1. 개요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1,837억원*으로 2024년 4조 30억원 대비 1,807억원 증가**

* 내부거래(일반회계→공자기금),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조 6,409억원

** 금융위 예산(억원) : ('23) 37,636 → ('24) 40,030 → ('25) 41,837 ('24比 +1,807)

2. 주요 운용방향

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 예산 확대('24. 3,300억원 → '25. 5,0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이후 지원대상·신청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예산*을 확보

* 정책서민금융 '25년 예산 : 햇살론15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② 청년층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청년층이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축적하여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24. 3,682억원 → '25. 3,470억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한 청년층의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여금 지급을 확대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재정 투입('24. 1,000억원 → '25. 1,000억원)

③ 미래성장동력 확보

-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생태계펀드',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

* '25년 예산 :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억원

-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공급 및 혁신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25. 1,762억원)

<첨부>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별도배포, 1.15일 이후 홈페이지 공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양병권 (02-2100-2831)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담당자	서기관	김영대 (02-2100-2951)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02-2100-265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630)
		담당자	사무관	김민하 (02-2100-2642)
<공동>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박석훈 (02-2100-2531)
<공동>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02-2100-2913)
<공동>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서기관	송용민 (02-2100-1730)
			사무관	배인정 (02-2100-1737)